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 news.onnuri.org | 2023년 5월 21일(주일) 제1443호

영혼의 나침반 '예수 그리스도'

2023 회복축제, 예배당 2,019명, 온라인 2,240명 참석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영혼 돌봄 돕는 전문가 8인의 강의

우리 영혼의 나침반은 '예수 그리스도'다. 2023 온누리회복축제에서 깨달은 진리다.

2023 온누리회복축제 '영혼의 나침반'이 막을 내렸다. 영혼의 나침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상처와 아픔을 돌보고, 온전히 치유하는 축복의 장(場)이었다.

온누리회복축제 '영혼의 나침반'은 지난 5월 17일(수)일부터 19일(금)까지 이어졌다.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과 온라인(유튜브)에서 진행됐다. 17일 예배당 687명, 온라인 720명, 18일 예배당 632명, 온라인 720명, 19일 예배당 700명, 온라인 800명이 참석했다.

이번 온누리회복축제 '영혼의 나침반'에서는 요일별 주제에 따라 정신건강 및 상담 전문가 8인이 강의했다. 17일(수)은 '감정돌봄'을 주제로 권수영 교수(연세대 상담코칭학과), 박상미 대표(더공감마음학교), 남은영 교수(서울여대 아동학과)가 강의했다.

권수영 교수는 "진짜 감정을 들여다보고 꺼내서 나눌 때 나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미 대표는 "매일 감사를 발견하는 훈련을 통해서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느끼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은영 교수는 "부모와 자녀, 부부, 동료, 타인, 스스로에게 감정코치를 적용하면 원만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8일(목)에는 '정신 돌봄'을 주제로 채정호 교수(서울성모병원 정신의학과), 남윤영 박사(한마음정신회복예배 상담의)가 강의했다. 채정호 교수는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격을 갖추고, 곁에 있어 준다면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고, 남윤영 박사는 "말씀 묵상과 큐티, 기도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19일(금)에는 '영혼돌봄'을 주제로 이만홍 교수(로뎀정신과의원), 채규만 교수(성신여대 심리학과 명예교수), 이기원 목사(회복사역본부장)가 강의했다.

이만홍 교수는 "영적 차원의 치유인 '영혼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묵상기도를 추천했다. 채규만 교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기원 목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했다〈메시지 8-9면〉.

정세진 성도(강남B공동체)는 "더는 부정적 감정을 회피하거나 나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애통한 마음을 사모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박성아 자매(요셉공동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관계의 소홀과 우울감을 기도와 말씀, 공동체 교제로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정현주, 홍하영 기자

5월 20~21일 입양위탁행사

사회선교부 제이홈사역팀에서 5월 20일(토)과 21일(일) 입양위탁행사를 개최한다. 국내 11개 캠퍼스 로비에서 입양위탁 문화 정착과 활성화를 돕는 사역팀과 관련 기관을 소개하고, 입양위탁을 독려한다.

고봉익 팀장(제이홈사역팀)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신 스토리"라면서 "더 많은 성도가 제이홈 입양위탁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입양위탁을 바로 알고, 입양위탁을 선택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 마리아행전 '광야의 힘'

6월 21~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성기도 부흥운동 마리아행전이 '광야의 힘'을 주제로 6월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막 오른다.

6월 21일(수)과 22일(목)은 각 캠퍼스 본당에서, 23일(금)에는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연합기도집회를 한다.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집회가 이어진다. 6월 21일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22일 이한영 부총장(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23일 이재훈 담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2023 마리아행전 '광야의 힘' 참가신청은 5월 27일(토)과 28일(일), 6월 3일(토)과 4일(일) 주일예배와 5월 24일, 31일, 6월 7일 수요여성예배 이후 각 캠퍼스 로비에 설치되는 접수데스크나 목회행정실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하고, 온라인 및 전화 접수는 받지 않는다. 회비는 1만 원이다.

문의: 02-3215-3667, 3201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 정현주 기자

5월 28일까지 '달려라 퐁당'

다음세대를 위한 후원챌린지 '달려라퐁당'이 5월 28일(일)까지 이어진다. 마지막 한 주 남았다. 현재까지 성도 3,068명이 동참하고 있다.

'달려라퐁당' 참가자들은 5월 28일(일)까지 걷기, 달리기, 라이딩, 등산, 인라인스케이트 등 거리 측정할 수 있는 운동을 하고, 운동한 만큼 다음세대를 후원한다. '달려라퐁당' 후원금 전액 기독 OTT '퐁당' 오리지널 콘텐츠 〈고고 바이블〉 글로벌 버전, 키즈 콘텐츠 〈우리 몸으로, 퐁당!〉, 〈바이블록: 성막 대작전〉 제작과 '퐁당교회학교'에 후원한다. 문의: 02-796-2243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기획연재_ 이단·사이비 OUT! 5면 **사역_** 가정사역과 함께 행복한 가정 만들기! 6면 **전문가 기고_** 부모님의 천로역정 7면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내일이 창조되다

창 1:3~5, 1:14~19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으로 영감 된 책임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록은 창조주 하나님의 증언이요, 모든 인간의 문제들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만물이 창조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왜 만물이 창조되었는가?'에 초점을 둘 뿐입니다. '어떻게'라는 인간의 과학적 탐구로는 창조세계의 비밀을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충분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흔적을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신 모든 만물, 작은 피조물 속에도 하나님 속성 일부를 나눠 주심으로 그 중요성과 필요, 용도와 존재 목적에 따라서 흔적을 심어 주셨습니다. 가장 많이 하나님의 흔적을 담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고 말하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타락 시키는데 초점을 둔 것은 인간이 모든 피조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반역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단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6일 동안 과정을 거쳐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질서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질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을 봐도 창조 기록은 어떤 설화나 신화, 풍유가 아니라 역사적 계시입니다. 큰 틀에서 과학이 발견하는 진리와 전혀 배치되지 않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의 창조를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 삼일은 하나님이 형태를 만드시고, 나머지 세 날은 그 형태 안에 내용을 채우는 창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창조하셨습니다. 네 번째 날에는 그 빛의 통로가 되는 광명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두 번째 날에는 물을 공간 아래 물과 위의 물로 나누시고, 그 공간을 하늘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하늘을 나는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심으로써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짝을 이룹니다. 세 번째 날에는 하늘 아래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함으로 드러난 뭍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셨습니다. 그 땅에는 식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날에는 그 땅에 존재하는 동물, 생물들과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을 이룹니다. 첫째 날은 넷째 날과 짝을 이루고,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짝을 이루고, 셋째 날은 여섯째 날과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앞의 세 날은 형태를 만드는 창조였다면 남은 세 날은 그것을 채우는 창조였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매우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거주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에너지의 근원, 생명 지탱하는 '빛'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은 네 번째 날에 창조된 것이기에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아닙니다. 도리어 태양이 빛나게 하는 빛입니다. 태양에 빛을 부여하는 빛입니다. 태양빛보다 근원적인 빛입니다. 태양을 빛나게 하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창조하신 게 첫 창조입니다. 태양이 사라지면 온 세상이 어둠에 처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으로부터 나온 빛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빛 되심을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도 "빛들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빛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이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3절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은 빛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하는 빛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창조된 빛입니다. 만물의 에너지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일서〉와 〈디모데전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빛이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빛이라면,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에 필요한 생명과 에너지의 근원으로써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게 천지창조인데, 가장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태양의 빛만 비춰지지 않아도 생물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식물도 광합성 작용을 해야 하고, 하늘로 자라는 것은 빛이 비춰야 합니다. 햇빛이 없으면 사람도 영양분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병을 치료하는데도 빛을 사용합니다. 몸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태우고, 피부 치료도 빛으로 합니다. 레이저도 빛의 종류입니다. 빛이 가져다주는 생명과 에너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그 빛의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무지개가 빛을 투과할 때 여러 가지 색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을 연구하면 할수록 빛의 세계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극히 일부분만 체험할 뿐입니다. 생명의 근원되는 빛이신 하나님이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고, 생명을 지탱하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다!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신 이유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진술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히 4:13).

빛이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심으로써 어떤 피조물도 사람에게는 숨을 수 있어도 하나님 눈은 가릴 수 없습니다. 어떤 어둠 속의 일이라도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며,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빛이 생겼는데, 빛과 어둠을 나누심으로써 낮과 밤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사역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누다'입니다.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둘째 날에 물을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고,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양성을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이 원래부터 두 개로 나뉘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원론'이라는 사상은 처음부터 선의 세계와 악의 세계가 동등한 힘으로 서로 싸우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게 여기 나옵니다. 빛과 어둠은 처음부터 별도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심으로써 어둠조차 빛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어둠은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악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통해서, 낮과 밤을 창조하심으로 시간의 흐름을 만드셨습니다. 빛과 어둠이 가져다주는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눈

**"일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는 삶이 창조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일은 계속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우리 삶에 창조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으로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것도 명암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색과 예술도 명암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입체적인 것도 빛과 어둠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빛과 어둠의 조화가 없었다면 예술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공간의 개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심으로써 이 세상을 풍성하고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심으로써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초의 저녁과 아침이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날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낮과 밤, 빛과 어둠은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만물에게 필요한 것이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과 항상 함께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됐습니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던 이유는 말씀하신 그대로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지켜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도록 계속 일하십니다.

시간 그리고 공간의 창조

첫째 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창조하심으로 시간을 먼저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간의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시간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공간 속에 살면서 시간을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공간을 만들기 위해 시간을 다 써버립니다. 그런데 영원에 더 가까운 것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공간에 빼앗기지 않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마련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없으면 어떤 공간에 있어도 허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날마다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영원에 닿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간보다 공간에 집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에 감사하기보다 내가 어떤 공간에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멋진 자연에 들어가면 우리가 기쁘게 되고, 무엇인가 새롭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첫째 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통해서, 낮과 밤을 통해서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빛을 세상에 비춰주는 광명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그것인데, 그것으로 인간을 위한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공간에 빛들이 생겨 낮과 밤을 나누고 절기들과 날짜들과 연도들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게 하라' " (14절).

여기서 '빛들'이라고 번역된 것이 광명체들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고 할 때 그 빛이 아닙니다. 그 빛을 반사하고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광명체, 발광체들을 의미합니다. 낮과 밤의 흐름을 통해서 날짜와 연도를 계산할 수 있도록 표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날에 빛과 어둠을 통한 시간의 흐름이 창조되고, 네 번째 날에 광명체들을 통해 공간의 창조가 통합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 시간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는 광명체들의 움직임을 통해 공간의 창조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날마다 '내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날이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이루어진 선물입니다. 내일이라는 시간, 내일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님 축복의 선물입니다.

창조의 기록에서 또 반복되는 표현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입니다. '날'이라는 표현에 대해 역사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창조의 시간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일입니다. 인간이 일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신학을 고민하는 사람일수록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신학자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이 날은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고 판단하기 불가능한 종류의 날이다"라고 했습니다. 종교 개혁자 장 칼뱅도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천문학과 심오한 학문을 탐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패턴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지, 창조의 연대를 계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6일을 창조의 날로 나누신 것은 창조질서대로 살아가라는 패턴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제7일째 안식하신 것은 6일 동안의 창조와 제7일 안식은 6일의 노동과 하루의 안식이 하나님의 창조질서라는 패턴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깨닫고 휴일을 제정한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그 이전에는 휴일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노예들은 항상 일하는 날이고, 주인들은 항상 노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안식이라는 패턴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주 오랜 시간이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일종의 도피심리 매커니즘입니다. 창조와 진화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과학적 탐구에 의한 게 아닙니다. 진화를 과학적 탐구에 의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출발을 모릅니다. 출발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느냐고 할 때 진화론은 항상 오랜 시간 동안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도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패턴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태양이 존재하기 전부터 빛과 어둠, 낮과 밤이 창조되었습니다. 밤의 영역을 저녁이라고 하고, 낮의 영역을 아침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이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패러다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깨어 있을 때부터 하루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하루는 저녁부터 아침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모든 절기를 저녁식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저녁 전까지 합니다. 일상에서는 안 지키지만 절기는 지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녁은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어야 합니다. 하루의 출발을 하나님 안에서의 쉼과 안식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침은 우리가 세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해가 떴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루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우리는 저녁에 쉬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깨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앞서 시작하신 일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아침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을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밤새 준비하신 일을 우리가 아침에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저녁에 지쳐서 쉼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는 삶이 창조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일은 계속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내일도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창조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포스트모더니즘은 반기독교적 이념

모더니즘은 19세기와 20세기 중반에 걸쳐 과학기술에 의존해 발전해 온 무신론 세계관들을 통칭한다. 세속적 인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탄생시켰다. 이들 모더니즘의 쌍둥이는 서구의 전통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진화론으로 무너뜨리고, 세상 속에 무신론적 관점의 주류화를 모색했다. 20세기 초반 1,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세계 각국은 전시 군사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종전과 함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따르는 국가들 간의 냉전은 전체주의적 독재가 일어날 수 있는 시대적 배경을 제공했다. **권위주의 독재를 경험했던 인본주의자 및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의 권위에 대항해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 만들어 낸 세계관이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이다.**

장 프랑수와 리오타르는 1970년대 후반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을 명확히 정의하는데 공헌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항상 참이 될 수 있는 큰 이야기(메타 내러티브) 즉,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한다.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자는 이를 이용해 힘과 권위를 획득하게 되고, 이것이 권위주의의 기반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큰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들을 억압하는 것처럼, 자본가의 이야기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억압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시간과 장소에 같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 합의되고 공유될 수 있는 작은 이야기(리틀 내러티브)들만 있을 뿐이고, 큰 이야기는 권위주의자들에게만 필요할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포스트모더니즘은 메타 내러티브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세계관으로 규정될 수 없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프랑스 정신과 의사였던 자크 라캉은 '사회적으로 구축된 자아'라는 개념을 도입한 사람이다. 개인의 정체성은 언어, 지역, 교육, 가족, 국가 같은 사회적 요소들에 의해 구축된 자아들의 물리적 모음일 뿐, 각 개인에게 안정적이고 통합된 자아가 있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환경에 존재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에 의해 개인의 정체성이 변할 수밖에 없고, 결국 모든 인간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주인공처럼 다중인격이라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폭력적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공산혁명을 언어, 법률, 사회규범의 해체를 통해 주류문화인 기독교 문화를 해체함으로써 이루려고 시도하고 있다. 전통적인 윤리 규범을 파괴하면 사람들이 죄책감 없이 죄를 저지를 수 있다. 단어의 원래 뜻을 다른 것으로 바꿔 규정해 버리면 같은 말을 사용해도 그 의미가 반대로 뒤집힐 수 있다. 이를 통해 성경의 해석을 뒤집는 퀴어신학이 교회 속에 침투했다. 개인의 정체성을 다중인격으로 규정할 경우 어제 밤의 죄를 저지른 나와 오늘 낮의 선량한 나를 별개의 인격으로 치부하면서 어제 밤의 나의 죄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 변명할 수 있다.

포스트모던주의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그것은 당신에겐 진리일지 모르나 나에겐 아니다"가 있다. 누가 어떤 진리를 말하더라도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태도다. 이 말을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한다면 어떻게 사용되든 상관이 없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그 진술을 적용하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당신의 진리를 왜 나에게 강요하려 하는가?"라고 반문할 때 그들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들의 진리에 대한 시각을 타인에게 적용하려는 순간 모든 소통 능력이 붕괴되어 버린다.**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떼를 쓰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인 위르겐 하버마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비논리성을 포용하는 것은 도덕적 타락"이라고 말했다.

> **"포스트모더니즘은 기독교의 진리를 부정하는 무신론적이고 무책임하고 편향된 궤변이다.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시대를 지배하던 과학기술 중심의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틀에 박힌 생각에 지치고, 과학 기술자들의 현실적 성취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가졌던 인문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탈이성, 탈중심의 문학적 철학적 해체주의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들 중 대다수는 마르크스를 추종했었지만, 러시아의 공산혁명 이후 진행된 강제노동 수용소의 실상을 알고 실망했던 프랑스 지식인들이다.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한 호의적인 비평가는 "턱시도를 입고 프랑스의 국제철학학교에 있는 카페에서 코냑을 들이키고 있는 마르크스주의의 아류"라 정의했다. 덜 호의적인 비평가는 "마르크스주의의 드러난 치부를 가리기 위한 언어적 궤변"이라 평가했다.

종합하면, 이들의 생각은 신학적 무신론, 철학적 회의론, 도덕적 상대주의, 생물학적 진화론, 심리학적 영혼부정, 법적 실용주의, 그리고 정치 경제적으로 마르크스주의를 따른다. 모두 기독교에 반대하는 생각들이다. 우리는 데리다, 푸코, 리오타르, 라캉, 롤랑 바르트, 보드리야르, 로티 같은 사람들의 명성을 간접적으로 들어 알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기독교의 진리를 부정하는 무신론적이고 무책임하고 편향된 궤변이다. 일견 흥미로울지 모르지만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궤변에 분별력을 가질 수 있으려면 지식을 공부하는 것에 앞서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

카툰으로 배우는 '기독교 세계관'

OWA툰 no.2 (based on 22년 송구영신예배 설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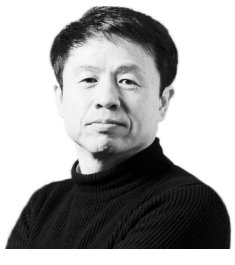
이단·사이비 OUT! 6. 만민중앙교회

이단 중의 이단!

만민중앙교회와 교주 이재록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의 파장이 거세다. '나는 신이다'는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며 대한민국을 현혹하는 4개의 사이비 종교(JMS,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의 실체와 피해를 다뤘다. 다큐멘터리에 나오지 않은 다른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폐단으로 인한 피해도 매우 심각하다. 이에 온누리신문에서는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연재 '이단·사이비 OUT!' 지면을 마련했다.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이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점과 그 대처법을 설명한다. 마지막 순서는 '만민중앙교회'다.

/ 편집자 주



탁지원 소장
(월간 현대종교 대표)

이재록(만민중앙교회 당회장)은 1982년 신학교 시절부터 '대언의 말씀'으로 이단 시비를 받았다. 신학교 졸업 이후에 성경의 자의적인 해석, 극단적인 신비주의로 한국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결의됐다. 이재록은 상습 준강간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1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재록은 1943년 전남 무안에서 태어났다. 1978년 기도 중에 "내가 너를 3년 연단했으니 3년 말씀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결교신학교(연합)에 입학했다. 1982년 만민중앙교회 개척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1983년 신학교를 졸업했다. 1990년 예수교대한성결교단에서 이단으로 결의됨에 따라 제명처분을 받았다. 이에 이재록은 1991년 7월 자체적으로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단'을 창립하고, 10만 성도로 그 세를 국외까지 확장했지만, 구속 이후 신도가 많이 줄었다.

이재록이 주장하는 것들

첫째, 이재록은 자신을 신격화한다. 자신을 가리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자 끝이라며, 심판의 권세자,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의 친아들이며, 아브라함도 자신이 부르면 온다고 한다. 1998년 한 집회에서 이 씨는 자신이 '피가름'을 통해 원죄와 자범죄가 없어졌다고 설교했다. 자신에게서 원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죽음이 자신을 피해가고, 무한한 권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주님이 가지신 무한한 권능이 "네게도 주어져 너도 그 이상으로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이 씨는 수많은 설교를 통해 자신을 신격화했다. 자신의 영이 하나님 보좌 좌편에 앉아 있으며, 물 위를 걷는 것 외에 66권의 모든 말씀을 이루었다고 했다.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가 됐으며, 심판 날에 주님 옆에서 성도들을 위해 직접 변호해 줄 거라는 등 수도 없이 자신을 신격화했다. 이처럼 이 씨는 마치 자신이 구세주요, 자기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인상을 심어줬다. 이재록의 신격화 주장은 본인 스스로 이단임을 자처하고 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이재록의 셋째 딸 이수진.

둘째, '믿음의 5단계, 천국의 5단계'를 주장한다. 이 씨는 믿음의 분량마다 갈 수 있는 천국이 다르다며 '믿음의 5단계'에 대해 다음같이 설교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1단계에 들어선다. 말씀을 배우고 행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2단계로 들어서게 된다. 조금 더 믿음이 자라 3단계에 들어서면 어느 정도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 자연스럽게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믿음의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범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마음에 있는 근본 죄성까지 벗어 버리면 믿음의 4단계에 들어서게 되는데, 비로소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된 것이다. 4단계에서 본성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육의 흔적과 같은 것들까지 버려 나가고 영적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면 최고의 믿음인 5단계에 들어선다."

이처럼 이 씨가 믿음에 단계를 구분 짓는 이유는 믿음의 단계마다 들어가는 천국이 다르며, 천국의 삶이 확연하게 차이나기 때문이다. 이 씨가 말하는 천국은 믿음의 1단계에 속한 사람이 들어가는 '낙원', 믿음의 2단계에 속한 사람이 들어가는 '1천 층', 믿음의 3단계에 속한 사람이 들어가는 '2천 층', 믿음의 4단계에 속한 사람이 들어가는 '3천 층', 믿음의 5단계에 속한 사람이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으로 구분된다.

"낙원에는 어떠한 개인 소유 집이 없다. 많은 영혼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공공건물이 있는데 마치 이 땅의 복지관 같은 건물이다. 자신이 일정 시간 동안 쉬었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 비워줘야 한다. 1천 층부터 상급이 주어지므로 개인 소유의 집이 주어진다. 1천 층의 집들은 이 땅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형태의 집이다. 이 땅의 아파트와 달리 계단이 없으며, 아름답게 장식된 엘리베이터만 있다. 1천 층의 엘리베이터는 올라타기만 하면 자동으로 원하는 층으로 이동하게 되고 고장 나는 일도 없다. 2천 층의 집은 완전히 독립된 단층의 개인 주택 형태이다. 크고 웅장하며, 꽃과 나무들로 화려하게 단장돼 있다. 정금과 각색 보석들로 만들어진 수영장, 호수, 무도회장, 산책길 등 원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 한 가지가 주어진다. 3천 층의 집들은 화려하고 웅장하며 거대한 규모의 복층 구조로 돼 있다. 호수, 골프장, 산책길 등 원하는 시설 모두 소유할 수 있다. 새 예루살렘 성안의 집들에도 주인이 원하는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다. 3천 층의 집들과 비교할 때 그 규모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의 정도가 훨씬 뛰어나다."

이재록에 대해 예장합신 측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며, 그리스도의 구속을 왜곡 축소시키므로 많은 영혼을 유린하는 자"라며 "거짓 선지자, 삯군 목자, 이단 중의 이단"이라고 정리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에서도 "신론, 구원론, 인간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내세)론"의 문제로 이단으로 결의했고, 예수교대한성결교에서도 이단으로 결의했다.

주요 활동 및 교세 현황

만민중앙교회는 이재록의 도서홍보에 전력 질주하고 있다. 도서출판 '우림북'은 온라인 서점으로 이재록의 100여 권의 저서와 번역 도서를 판매하고 있다. 이 씨의 책은 영어, 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아랍어, 타갈로그어, 중국어, 불어, 히브리어, 몽골어, 이탈리아어, 네팔어, 인도네시아어 등으로 번역됐다. 국제도서전을 통해 꾸준히 홍보되고 있다. 교회 홈페이지에 이 씨의 설교와 신도들의 치유에 대한 간증을 게재하고 있고, 기적과 표적에 대한 신비 체험 관련 사진을 올려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고 있다. 또 만민중앙교회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긍정적인 기사를 전문 게재함으로 단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환기시키고, 건전 단체인 것처럼 보이도록 유도하고 있다. 'GCNTV'도 운영하고 있는데, "위성, 공중파 방송 등을 통해 전 세계를 커버하는 기독선교방송 네트워크를 구축, 세계 모든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한다)"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재록이 안수기도한 손수건을 아픈 곳에 대고 기도하면 치료된다고 주장하며 손수건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교회에서는 이 집회를 통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난다며 치유된 사람들의 간증과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 〈출애굽기〉 15장에서 쓴 물이 단물로 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씨의 기도로 무안지역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씨의 고향인 전남 무안을 성지화하고 있고, 신비적인 치료의 효과를 내세워 대대적인 홍보를 감행하고 있다. '무안 단물'이라고 불리는 이 물은 미국 FDA(식품의약국)에서 안전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MBC 〈뉴스후〉(2006년)는 유명대학 연구소에서 무안 단물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음용수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대장균 포함 8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보도했다.

만민중앙교회는 지교회 및 지성전이 전국에 걸쳐 분포돼 있는데, 지교회 25개, 지성전 12개 총 37개 교회가 설립돼 있다. 해외에는 아시아 17곳, 유럽 8곳, 아프리카 7곳, 북미 6곳, 중남미 3곳, 중동 3곳에서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다. 연합성결신학교와 만민국제신학교 등 교육기관을 설립해 전문사역자를 양성하며 지도자 재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만민복지타운, 만민기도원, 선교원 등 자체 부설 기관도 보유함으로 교세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이재록 성 파문 이후 신도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 이 씨의 셋째 딸 이수진이 당회장 대행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단, 사이비 문의 및 제보
현대종교: 031-830-4488,
mrmad@hdjongkyo.co.kr

가정사역과 함께 행복한 가정 만들기!

행복하고 건강한 부부, 가정, 미래를 선물합니다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꿈꾼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신혼, 중혼, 황혼 등 인생 시기에 따라 갈등이 다르고, 임신과 출산, 사별과 이혼 등 예기치 못한 환경 변화 등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낳기 때문이다. 인생의 단계마다 경험하는 어려움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방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배워야 한다. 온누리교회 가정사역에서 알려주는 행복한 가정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인생의 단계를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고, 지혜롭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기 때문이다.

온누리교회 가정사역에서는 인생 단계별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준다. 사역팀을 세분화해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 양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가정사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만 배워도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온누리교회 가정사역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수료 커플들(왼쪽)과 '젊은부부학교' 수료 가정(오른쪽).

결혼해 보니까 알겠다.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의 뜻 말이다. 부부의 사랑, 젊음의 패기, 꿈과 희망만으로는 헤쳐나가기 버거운 게 결혼생활이다. 20~30년을 각자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꾸렸는데 문제가 없다면 이상한 일이다. 부부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당연하다면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극복하는 방법도 꼭 알아야 한다.

온누리교회 가정사역본부에서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표어로 내걸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의 단계마다 찾아오는 문제와 위기를 온전히 극복하도록 돕고 있다. 부부사역팀(아름다운동행, 젊은부부학교), 하가훈팀(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대외협력), 드림사역팀(야베스맘, 드림어게인), 출산장려사역팀(크리스천 결혼문화, 헬로맘, 행가래)으로 사역팀을 세분화해서 성도들에게 맞춤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행복한 부부 생활' 배우기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 부부의 행복이 곧 가정의 행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젊은부부학교'에서 그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젊은부부학교는 젊은 크리스천 부부들(20~40대, 결혼 12년 차 이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정의 원리를 가르쳐준다. 말씀을 바탕으로 행복한 결혼생활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가르쳐준다. '성경적 결혼관', '남녀차이 & 부부 대화', '친밀한 부부의 삶', '축복의 가정' 등을 주제로 실제적이고 심도 있는 강의를 제공한다.

무엇인가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먼저 경험한 이들의 조언과 지지만큼 값진 게 없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다. 부부코칭 프로그램 '아름다운동행'에서는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갈등, 시행착오를 다른 부부들과 나누고, 부부코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8주 동안 일대삼 부부 코칭을 통해 실제적인 부부 관계를 배울 수 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부모에게는 자녀의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볼 의무가 있다. 자녀 양육은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 양육이 어려워도 너무 어렵다는 점이다. 그때 온누리교회 가정사역을 찾으면 된다. 자녀 양육에 첫발을 내디딘 부모, 사춘기 자녀 교육에 대해 알고 싶은 부모, 자녀 양육과 중년의 어려움이 겹쳐 힘겨워하는 중년 부부들을 위한 솔루션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는 온누리교회 가정사역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이다. 두란노아버지학교와 두란노어머니학교 사역의 모태이기도 하다. 결혼 10년 차 이상 부부를 대상으로 하나님이 꿈꾸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도록 돕는다. 자녀들을 위한 '홀리 스카우트(Holy Scout)'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성경적 가정제도의 원리', '부부 대화', '부부의 성', '자녀교육' 등을 주제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다.

가정에 새 생명이 찾아오는 임신과 출산만큼 좋은 소식이 또 있을까? '헬로맘 스쿨'에서는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예비 엄마, 임산부, 영유아기 자녀가 있는 엄마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경적인 태교 방법부터 임신과 출산 이후 마음 관리 방법, 영유아기 자녀 양육까지 성경적 부모를 만드는 실제적인 방법을 아낌없이 전수한다.

'새로운 삶, 행복한 미래' 꿈꾸기

온누리교회 가정사역에서는 예기치 못한 고난의 파도를 만난 성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혼자들의 회복을 돕는 '드림어게인'과 여성사별자모임 '야베스맘'이 그것이다. 이혼과 사별의 아픔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온전한 회복을 돕는다.

'드림어게인'은 이혼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 충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매주 토요일 예배와 매년 두 번 스쿨(상반기, 하반기)을 개강한다. 이혼자, 이혼 위기에 있는 사람, 별거 중인 성도가 대상이다. 드림어게인은 타교회 성도 비율이 50%나 될 정도로 외부에서도 칭찬과 관심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야베스맘'은 사별로 인한 정서적 상실감과 두려움을 예배로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을 경험하도록 돕는 여성사별자를 위한 모임이다. 매주 화요일(비대면)과 토요일(대면) 정기모임을 하고, 재능기부, 야유회, 수련회, 세미나 등도 한다.

온누리교회 가정사역에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역도 있다. '크리스천 결혼문화팀'에서는 매년 '결혼문화세미나'를 개최해 결혼 적령기 청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올바른 결혼문화를 교육한다. 오는 6월 10일에는 40대 이상 미혼기독청년을 위한 결혼문화세미나 '지중해(지금이 중요해)'를 실시한다.

'행가래팀'에서는 '청춘클래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크리스천 청년들의 연애와 결혼에 관한 유익한 강의와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02-3215-3221, jkw7966j@onnuri.org

가정사역 스쿨 안내

스쿨명	일정	문의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9월 9일부터 4주(130기), 10월 14일부터 4주(131기)	010-9049-3375
젊은부부학교	6월 3일~6월 24일 / 10월 14일~11월 4일	010-9750-5907
아름다운동행	9월~11월(8주) / 11월~12월(2주)	010-2633-4808
드림어게인	5월 20일~6월 17일	010-2539-5665
야베스맘	매주 화요일(비대면), 토요일(대면) 정기 모임	010-2771-0073
헬로맘	10월(온라인 - 임신, 출산후 스쿨)	010-2716-2736
크리스천결혼문화세미나	6월 10일	010-5628-8872
청춘클래스	8월 19, 26일(5기) / 11월(6기)	010-6670-1360

부모님의 천로역정

가족사 너머에 있는 한국 교회 시대사

김수민 권사
(동대문중랑공동체,
칼럼니스트)

극작가와 소설가를 통해 가공되는 인물들의 삶은 실화에 바탕을 둔 줄거리라 할지라도 평범하지 않다. 그런데 놀랍게도 작가가 가공한 특별한 인생스토리들은 평범하게 보이는 우리 집안과 이웃들의 가족사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6.25 한국전쟁의 시련 속에서 불거진 이데올로기 갈등, 영화 '국제시장'에서 묘사된 것처럼 산업화, 도시화, 민주화의 소용돌이 가운데 일어난 상경 러시, 월남 파병, 파독 광부와 간호사 파견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했다.

"그 시절 교회는 믿음의 식구들과 애환을 함께 나누던 쉼터였고, 아이들에게는 가장 재미있는 놀이터이자 부푼 마음으로 미래를 꿈꾸는 꿈터였다."

조부모, 부모세대의 특별한 헌신 그리고 신앙

동시대를 지낸 부모님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그 스토리 주인공들이다. 그만큼 격동기 현대사를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시대를 반영하는 자기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 국가와 사회뿐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룬 한국 교회의 역사도 그렇다. 최근 책〈누군가의 천로역정〉(한스북스, 김상배 저)을 읽으며 깊은 공감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이 책을 읽으며 부모님을 기록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가를 깨달았다. 전후 척박했던 시절 주님만 바라보며 교회를 사랑하고 온갖 역경을 이겨낸 기억들이 공간과 함께 머문다. 그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저자는 연세 든 부모님을 모시고 신혼 시절부터 노년기까지 거쳐 갔던 삶의 터전들을 찾아다닌다. 삶의 애환과 눈물의 기도, 자녀 양육기, 도전과 실패, 삶의 고비마다 역사하신 성령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곳들이다. 부모님의 삶을 기록하다가 저자는 성장의 기억 속에서 가족사 너머에 있는 한국 교회 시대사와 성령의 역사를 마주하게 된다. 모든 성도가 가난했던 변두리 교회였지만, 초대교회와 같이 목회자와 성도가 한마음으로 전도와 봉사의 열정을 불태웠던 순수의 시대였다. 이와 반대로 경제성장이 함께 몰고 온 교회의 대형화, 물량주의가 첫사랑과 본질을 잃어가게 하는 모습들도 조명하고 있다.

동네 천막교회에서 흙바닥에 가마니 깔고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 건축을 결정했을 때, 저자는 아버지가 손수 찍은 벽돌을 모든 성도가 함께 나르며 기쁨이 충만했던 모습을 기억한다. 초라한 판잣집이었지만 냄새나는 노숙자를 집안으로 들여 목욕시키고,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혀 따뜻한 밥상과 함께 예수님을 증거하시던 모습, 주일학교 부장을 맡아 아이들 전도는 물론이고, 가정폭력을 행사하던 불신자 가장을 끝내 교회로 인도한 영혼 사랑의 모습도 기억에 남아있다. 사춘기 시절에는 매일 드리는 가정예배가 마치 빈곤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하는 모르핀 주사같이 여겨져 반항심이 끓어오르기도 했다. 생계를 위해 리어카를 끌며 생선장사, 채소 장사를 하셨던 어머니는 두세 시간씩 틈을 내 세차장에서 일한 돈을 모아 두 아들 이름으로 건축헌금을 하셨다. 그 시절 교회는 우리에게 믿음의 식구들과 애환을 함께 나누던 쉼터였고, 아이들에게는 가장 재미있는 놀이터이자 부푼 마음으로 미래를 꿈꾸는 꿈터였다.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이 두 달 만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 지켜야 할 율법을 모세에게 전해주셨다. 40년 광야 길을 지나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조상들이 체험한 은혜와 기적들을 후대가 기억하게 하면서 다시 한번 〈신명기〉를 통해 율례를 선포하셨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며 교회학교들이 50% 이상 문을 닫았다는 통계를 접하며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곧 선교 대상국이 될 거라는 위기감을 느꼈다. 우리 조부모와 부모세대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얼마나 순수하고 철저한 헌신을 했던가!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형언할 수 없는 희생을 하면서도 가난으로 인해 상처입은 자녀들의 자존감을 지켜주며 기도로 그 앞길을 열어주신 모습들을 기록해보고 자녀들에게 전해주면 좋겠다.

코로나19 이후 한국 교회와 다음세대 신앙교육 실태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교회에 나가지 않는 한국의 가나안 성도가 2012년 10.5%에서 2023년 1월 30%로 증가했다. 우리나라 총인구를 5,100만 명으로 볼 때 교회 출석자는 550만 명, 가나안 성도는 공식적으로 2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교회를 나가다가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사라진 사람이 15%에 이른다. 출석교회 현장 예배는 나가지 않고, 다른 교회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플로팅 크리스천'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SBNR(Spiritual But Not Religious)'이라는 종교사회학적 용어가 있다. 영적인 욕구는 있지만, 제도권 교회는 이제 나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지나치게 반기거나 사생활에 관심을 갖는 것을 귀찮고 부담스러워 한다. SBNR에 가나안 성도들까지 포함하면 전체 크리스천의 절반이 넘는다. 자칭 기독교 국가라 생각하는 유럽은 전체 크리스천 비율이 70%정도 되지만,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 교회당이 텅텅 비어 있다. 교회당이 술집이나 극장으로 바뀌는 유럽 교회를 한탄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최근 서울 성수동에도 교회 건물이 클럽으로 바뀐 예가 있다. 김포에서는 교회 건물이 대형 베이커리 매장으로 팔린 경우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변화 중 하나는 한국 성도들의 신앙이 약화한 점이다. 최근 미국 퓨리서치센터에서 전 세계 1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 성도의 신앙심이 가장 크게 하락했다. 방역정책으로 교회당을 셧다운하는 동안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은혜받고, 목사님의 축도, 교회 봉사, 식당에서 교제하며 나누는 식사 등 대면 중심의 신앙생활이 약해졌다고 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미래 교회 리더십으로 바통터치 해야 하는 30~40대의 신앙이 가장 약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직장생활 스트레스와 가사, 육아 등에 지쳐있다고 응답한 젊은 부부들이 절반이 넘는다. 어떤 교회에서는 부목사님 주관으로 3040세대만 별도로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게 했더니 인근 지역 3040 부부들이 많이 찾아와 예배 규모가 커졌다고 한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시끄럽고 난장판인 현장을 인내한 열매다.

교회 다니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평일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느냐고 물었더니 절반 이상이 "전혀 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교회 다니는 부모인데도 자녀에게 교회 가는 것을 권하는 경우가 37%밖에 되지 않았다.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말라고 하는 부모가 32%, 교회 가는 것을 원치 않는 부모도 30%에 육박했다. 부모가 교회 중직자인 경우도 27%나 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유치원생부터 고3 때까지 자녀를 둔 교회 다니는 전국의 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자녀 신앙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무려 절반이 "모른다"고 대답했다. 73%는 교회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않고 있고, 5%만 집에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하고 있었다. 주일 교회학교 출석률은 가정예배를 드리는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자녀들의 신앙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은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임을 알 수 있다.

부흥과 함께 침투한 교회의 물량주의의 폐해는 책 〈누군가의 천로역정〉에서도 엿볼 수 있다. 목사님과 아버지가 땀과 기도로 개척한 교회가 주변 지역 개발과 함께 성도가 늘면서 제법 중대형교회가 되었지만, 1호 성도였던 아버지가 장로로 장립되지 못했다. 장로가 되려면 일정 헌금을 내야 하는 한국 교회의 부당한 관행이 그 교회에도 들어왔고, 결국 당장 장로헌금을 내지 못할 사람이라는 이유로 담임목사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교회 초창기 시절 배를 주리면서 열심히 심방을 다니고, 성도들의 가정사와 기도제목을 파악했던 주의 종이 교회가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담임목사의 위상이 제왕적 위치에 오르면서 VIP를 만나기에도 바쁜 당회장으로 변질했다.

밤새도록 쥐가 집 천장을 내달리는 허름한 판잣집에서 고된 하루를 마감하며 기분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자녀들과 가정예배를 거르지 않은 부모님 이야기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간증이다. 팔순을 넘긴 지금도 새벽기도회에 빠지지 않는 어머님의 기도는 교회와 자녀들의 성장 밑알이다. 생계보다 교회 봉사를 우선했던 늙으신 아버지는 지금도 성경 66권을 세 번째 필사하며 이웃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신다. 올해 가정의 달에는 앨범 속 흑백사진이 컬러영상으로 부활해 생명을 전해주는 믿음의 릴레이가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2023 온누리회복축제 영혼의 나침반 전문가 8인의 메시지

1 나쁜 감정은 나쁘지 않다

모든 감정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감정은 꼭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보통 나쁜 감정이라 생각하는 '분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용물이 팔팔 끓어 냄비 뚜껑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불을 끄고, 냄비 뚜껑을 열어야 합니다. 그 다음 내용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물이 잘 끓여졌는지, 타지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냄비 뚜껑은 상태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용물이 잘 끓고 있다고, 내용물이 타지 않게 얼른 상태를 살피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냄비 뚜껑이라고 생각해봅시다. 분노는 내 안의 또 다른 감정 상태를 알려줍니다. 분노는 내 안에 숨어있는 진짜 감정의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결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분노로 표출되는, 분노라는 냄비 뚜껑을 들썩이게 만드는 나의 진짜 감정이 무엇일까요? 내 감정의 냄비 안에는 어떤 내용물이 들어 있을까요? 분노라는 감정에 가려진 나의 진짜 감정을 찾고 돌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진짜 감정은 '관계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상대를 탓하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분노라는 감정에 휩싸여 그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때 나를 향한, 내 존재를 향한 진짜 감정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감정의 냄비 안에 숨어있는 내용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느끼는 좌절감, 수치감, 거절감이 진짜 내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내 진짜 감정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내 수치감이 건드려졌기 때문에 상대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면 인정 받고 싶은 욕구가 크고, 집에 가면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크기 때문에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상대에게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나의 진짜 욕구, 나의 진짜 감정을 들여다보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를 향한 나의 욕구를 솔직하게 꺼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에 현혹되지 말고, 진짜 감정을 찾아 보고, 나의 욕구를 꺼내 나눈다면 친근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권수영 교수
(연세대 상담코칭학과)

2 우울한 마음도 습관입니다

많은 크리스천이 우울과 불안, 무기력으로 힘들어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더 큰 우울과 불안으로 빠져듭니다. 그러나 우울과 불안, 두려움은 신앙심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울, 불안, 분노, 두려움, 외로움, 무력, 열등감을 느끼는 마음 등 우리가 느끼는 모든 마음은 습관입니다. 우리 뇌는 생존 시스템이 강하기 때문에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전에 당했던 위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전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 기억을 강력하게 저장하고, 방어하려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 버림받았던 기억, 사랑받지 못했던 아픔을 더 강력하게, 더 오랫동안 깊이 저장하려고 애씁니다.

살다 보면 우리를 자주 찾아와 힘들게 하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 감정들을 심리학에서는 '핵심 감정'이라고 합니다. 이 감정은 어린 시절 경험에서 생긴 것입니다. 유년 시절부터 청소년기를 거치는 동안 유독 많이 느꼈던 감정일 것입니다. 나를 키웠던 양육자가 나에게 유독 많이 표출했던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은 무의식 속에 숨어있다가 작은 자극에도 불쑥 튀어나와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뇌가 자주 느끼고 표출하는 감정은 습관일 뿐입니다. 내가 과거에 겪었던 아픔 때문에 무의식 속에 있던 감정이 자주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과 감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안과 우울, 두려움으로 힘들었다고 해도 연습을 통해서 좋은 감정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올 때 우리 뇌가 좋은 감정,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감사를 주는 게 아닙니다. 감사를 발견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과 감정이 찾아오면 긍정적인 생각과 좋은 감정을 선택해서 감사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감사를 발견하는 습관이 있는 뇌는 불행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발견합니다. 매일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의 능력을 키워서, 다음세대에게 감사의 습관을 물려주기를 축복합니다.

박상미 대표
(더공감마음학교)

3 감정코치

우리 안에는 '상위정서'가 있습니다. 상위정서는 자신이나 타인의 정서 상태를 인식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남자아이가 동생에게 장난감을 뺏겨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너는 사내자식이 뭐 그런 일로 울고 그래? 다른 장난감 가지고 놀면 되잖아!"라고 말한다면, 그 아이는 자신이 느낀 슬픈 감정, 억울한 감정이 잘못된 거라는 가치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정서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고, 조절하는지와 관련한 가치체계를 '상위정서'라고 합니다.

상위정서를 다루는 몇 가지 유형 중 하나가 '감정코치형'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유형이기에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와 자녀관계에 빗대 감정코치형을 설명하겠습니다. 감정코치형 부모는 자녀의 감정을 수용해주고, 공감해주며, 같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줍니다. 앞에 말씀드린 예시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동생에게 장난감을 뺏겨서 우는 아이에게 감정코치형 부모는 "동생이 물건을 가져가서 정말 속상하겠구나"라며 아이의 속상한 마음에 공감할 것입니다. 속상해서 떼쓰고 우는 아이의 감정을 밀어내지 않고 수용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과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시간을 조절하거나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등의 해결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감정을 수용하고, 공감해주며, 문제 해결을 돕는 감정코치형 부모는 자녀에게 대처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을 깊게 합니다.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도 돕습니다. 이처럼 감정코치는 관계 성공을 위한 열쇠입니다.

저희 연구팀에서 상위정서에 대한 종단연구를 5년 동안 했습니다. 자녀들이 3세부터 8세가 될 때까지 연구했고, 학교에 들어간 이후 그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부모에게 상위정서 중 하나인 감정코치를 받은 아이들은 받지 않은 아이들보다 학업성적이 월등히 우수했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공감하는 기술을 배우기 때문에 대인관계도 원만했습니다. 안정적인 공감과 수용을 받으며 마음이 편안해서 그런지 면역 기능도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행동도 개선되었습니다.

감정코치는 부모와 자녀 사이 외에도 부부, 직장동료, 타인,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처했을 때 타인이나 스스로의 감정을 알아차려 주고, 공감해주고, 문제 해결을 도와줄 수 있다면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남은영 교수
(서울여대 아동학과)

4 '고통의 곁에 우리가 있다면(트라우마의 회복)'

트라우마(Trauma)는 희랍어로 '뼁 뚫렸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뼁 뚫려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짓눌리고, 압도되는 것을 '심리적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살면서 트라우마를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조상인 아담은 어떤 고통을 겪었습니까?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트라우마를 안고 인류의 조상이 됐습니다. 노아는 어떤 고통을 겪었습니까? 8명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죽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인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트라우마를 이야기할 때 세월호 사건(2014년 4월)을 많이 말합니다. 그해 7월 네덜란드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말레이시아에서 격추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을 대하는 네덜란드인들의 반응이 우리와 사뭇 달랐습니다. 비행기 잔해와 시신을 수습한 비행기가 네덜란드공항에 도착했을 때, 네덜란드 왕을 포함한 모든 내각이 공항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을 한 명 한 명 안아줬습니다. 시신운구 차량 행렬을 보면서 모든 국민이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렇게 아픈 마음을 달래고 회복하려 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회복하고 치유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남이 겪는 고통과 죽음 앞에서 무조건 격(格)을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그 아픔과 고통 앞에서는 누구라도 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 사람의 아픔에 무조건 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못해서 우리 사회가 힘든 것입니다. 남의 고통과 트라우마에 아파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그 아픔에 격을 갖추는 사회가 트라우마로부터 회복되는 사회입니다. 고통과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 옆에 누가 있고, 어떻게 지켜주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회복은 누군가 옆에 있을 때, 누군가의 사랑이 있을 때 시작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회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같이 있고, 곁에서 어떤 방식으로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고통에 대해 격을 갖출 때, 그 아픔을 따뜻하게 바라볼 때 비로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픔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름다운 이유는 상처에서 회복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정호 교수
(서울성모병원 정신의학과)

5 스트레스 과잉시대의 정신건강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의 토기로 빚으셨습니다. 각각 아름다운 그릇으로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에 금이 가기도 하고, 산산조각 부서지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걸까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스트레스로 인해 그릇이 산산조각 깨질 수 있습니다.

책 〈피로사회〉 작가 한병철은 현대인들이 과거와 다르게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많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트레스 과잉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한다는 것은 정신건강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정신건강을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7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의 징후를 인식하고 대처하기, 자신을 위한 시간 만들기, 하루의 시간 활용 프레임을 새롭게 구조화하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문제를 지금과 다른 렌즈를 통해 바라보기, 문제에 대한 도움 찾기, 전문가의 도움 받기입니다.

건강한 자아의식이 정신건강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자아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자아가 건강해지고, 발달하려면 '애착, 사랑, 친밀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자아의식을 가지려면 성경 속 렌즈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 못 박으라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시며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배신한 제자들에게 고기를 구워주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크리스천이라면 성경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변을 바꿀 수 있는 도구가 될 때 회복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복된 것을 보고 고통받는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스트레스에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방법은 '말씀 묵상'과 '큐티 적용'입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윤영 전문의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상담의)

6 자아돌봄에서 영혼돌봄으로

심리치료 관련 일을 한 지 50년 정도 되었지만, 저는 우울증 환자입니다. 저는 우울증이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치유와 회복은 구원에 대한 개념과 비슷합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울증 치유 과정에 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완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영혼 치유는 갈 길이 멉니다.

치유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심리적 차원의 치유'와 '영적 차원의 치유'입니다. 심리적 차원의 치유가 '자아돌봄'입니다. 자아가 주(主)가 됩니다. 이제까지 제가 했던 일이 자아돌봄이었습니다. 자아돌봄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 차원의 치유입니다. '영혼돌봄'입니다. 이것은 자아를 포기해야 알게 됩니다. 많은 분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눅 9:23)라는 말씀에 부담을 느낍니다. 여기서 자기(자아)를 버리라는 뜻은 나를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아의 주도권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내 영혼의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 돌봄은 한두 번 사건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영혼 돌봄을 위해서는 '홀로, 더불어, 함께'가 필요합니다. 첫째, '홀로'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 돌봄을 위한 영성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저는 침묵으로 하는 묵상기도를 많이 합니다. 침묵이란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던 이 세상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며 마음을 비우고 가만히 있는 노력을 해보십시오. 둘째, '더불어'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함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함께하라는 뜻입니다. 트라우마의 극복을 위해서는 함께하기가 꼭 필요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혼자 해결하지 말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셋째, '함께'입니다. 영성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묵상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함께 분별하십시오. 온전한 치료란 심리치료와 영혼 돌봄이 함께 이뤄지는 것입니다. 안전한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합니다. 영적인 고갈이 쉽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이만홍 교수
(로뎀정신과의원 원장)

7 임마누엘 치유와 마음돌봄

나에 대해 아는 것이 요즘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입니다. 기독교적인 마음 챙김이 필요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현존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기독교적 마음 돌봄'입니다. 기독교적 마음 돌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마누엘 일기 쓰기를 권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대화를 기록해보십시오. 이를 통해 심상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현존을 느끼고,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작동하는 우상 대신 성령님의 말씀, 예수님의 임재를 채워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다양한 상처 원인이 있습니다. 상처는 후유증(불안, PTSD, 우울, 자살, 낮은 자존감 등)을 남깁니다. 부정적인 내면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40년 이상 현장에서 상담한 상담가로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상처 입은 영혼을 직접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 맺도록 하는 게 사역의 기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난과 고통을 당했지만 오히려 부활의 영광으로 그것을 극복하셨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 덕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이겨내야 합니다. 임마누엘 치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내 안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풍랑으로 배가 위험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안아주십니다.

심호흡하면서 지금, 여기에 집중해보십시오. 예수님과 즐거운 기억을 심상 속에서 느끼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초대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예수님과 대화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시다.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이고, 죄에서 자유로운 영혼이다. 나는 괜찮다.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한 거다!"

하나님 안에서 정서적인 애착감을 느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살, 역경,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하면 '살자, 경력, 다들 힘내'가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삽시다!

채규만 교수
(성신여대 심리학과 명예교수)

8 고통의 치유와 영적돌봄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다섯 가지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통을 디딤돌로 삼아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통 속에 주저앉아서 낙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면 그 어떤 고통도 이기는 힘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어떤 삶을 살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통의 무게보다 내 안에 기쁨의 용량이 커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의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를 기억하고, 감정을 명명하고, 자신을 진정시키고, 기쁨의 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고난과 슬픔,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갔던 일을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해석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진 과거의 아픔과 기억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되기를 축복합니다.

넷째, '당신의 고통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혼자만의 감옥에서 나와야 합니다. 공동체를 만나야 합니다. 함께 할 사람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나의 고통을 함께하면서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 부정적인 감정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 부정적인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다섯째,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은 1번부터 4번까지 질문이 향하는 목표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질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종적인 방법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 임마누엘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심리치료를 받고, 정신치료를 받고, 훈련받는 이유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기원 목사
(회복사역본부장)

맛있는 말씀 해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창 1:1)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시간, 공간, 물질, 우주, 생명, 인간 등이 전혀 없는 무(無)의 상태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한다. 모든 것의 시작을 설명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간의 경험과 사고, 지식 등 모든 것을 뛰어넘는 엄청난 사실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월적 창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가설과 신화들을 만들었다. 아예 시작을 부인했다.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같다는 것이다. 또 과거의 어떤 모습이 변해서 현재의 모습이 된 거라고 상상한다. 많은 전설과 신화에서 어떤 신이 죽어 땅이 되었다는 등의 이야기가 가득하다. 이 생각들은 과학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과거 과학자들은 거대한 우주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대로 있다는 '정지우주론'을 주장했다. 그런데 우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게 관찰되자 우주가 대폭발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빅뱅이론'이 등장한다. 빅뱅이론은 우주가 변함없이 그대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드디어 창조를 인정한 거라고 착각했다. 그러나 빅뱅이론이 성립되려면 우주 전체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것이 먼저 존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지성과 과학의 한계다. 무(無)에서 모든 것이 생겼다는 창조의 개념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데 무엇이 저절로 생기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적 창조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개념 너머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 '시간'에 대해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 하나가 시간이다. "태초에"라는 표현은 이제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전에는 시간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시간도 창조하셨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시간과 공간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공간'이라고 표현한다. 20세기 들어서기 전까지 사람들은 시간이 존재한다는 개념을 가지지 못했다. 공간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만, 시간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혔고, 그래서 타임머신이 있다면 과거나 미래의 시공간으로 갈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20세기 과학이 밝힌 시공간의 존재를 수천 년 전에 쓰인 〈창세기〉 1장 1절이 기록하고 있다.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시간이 처음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 21세기 과학도 하나님의 초월적 창조를 조금도 설명할 수 없다. 과학은 단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질서를 연구할 수 있을 뿐이지, 무(無)의 상태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초월적 능력을 검증할 수 없다.

하나님의 초월적 창조를 믿으면 모든 게 훤히 보이고 알기 시작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음으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을 압니다"(히 11:3)라고 멋지게 표현했다. 믿으면 보이고, 그리고 알게 된다.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 대신 지동설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질서가 존재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인간과 생명의 창조는 진화론, 우주의 창조는 빅뱅이론으로 대신하는 이론들은 순수한 과학을 넘어서 왜곡된 믿음 체계가 된다. 창조신앙을 과학의 이름으로 거부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와 우주에서 사는 누구도 하나님을 거부한 것을 변명할 수 없다(롬 1:20).

이은일 장로
(성북공동체,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구원의 주권자를 노래하는 삶

5월 22일~5월 28일
〈사무엘하〉 20:14~23:12

묵상포인트 1: 현명하고도 부드러운 설득이 악한 상황을 선으로 바꾼다. 요압은 반란자 세바 한 사람을 죽이고자 유서 깊은 하나님의 성읍인 아벨 성을 파괴하려 한다. 이때 여인의 설득으로 아벨 성이 지켜지고 반란이 진압된다.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는데, 자연재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다. 아벨 성의 파괴를 막은 지혜로운 여인의 설득이 어떠했는지,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 묵상하자.

▶ 반란의 주역인 세바를 잡기 위해 아벨 성을 파괴하려는 요압 앞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아온다. 여인은 아벨 성을 파괴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말하며 요압을 지혜롭게 설득한다. 요압은 협상안을 제시하고, 반란은 평화롭게 진압된다. 3년 기근을 겪으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울 시대에 기브온 족속과의 언약을 어기고 그들을 무고히 살해한 것이 그 이유"라고 말씀하신다. 다윗은 기브온 족속의 요구대로 사울의 후손 중에서 남자 일곱 명을 내주고 사울의 죄를 대속하게 한다. 다윗이 그들의 뼈를 거두어 장사하고,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려 주신다.

묵상포인트 2: 다윗은 나라를 굳건히 하기 위해 수많은 정복 전쟁을 했다. 그 모든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임을 깊이 깨달았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무결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엎드리는 사람이다.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다양한 각도에서 높이며 노래한다. 다윗의 찬양 고백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자.

▶ 수많은 전쟁을 치른 다윗은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 능력에서 비롯되었음을 고백한다. 하나님은 요새와 반석, 방패와 피난처가 되셔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분이다. 그분은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기에 그분의 도를 지키고 죄악을 피한 다윗을 구원하셨다. 완전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다윗이 적진으로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고백한다. 그는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자신과 자신의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신 언약이 영원하기를 간구한다.

묵상포인트 3: 리더의 덕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공의를 베푸는 것'이다. 능력이 출중해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리더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왕이었고, 그에게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충성된 용사들이 있었다. 사람들에게 선한 유익을 끼치는 리더의 모습을 살펴보고, 신실한 동역자의 중요성에 대해 묵상하자.

▶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셨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는 지도자였기에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구원과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다윗에게는 충성된 용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용감히 싸워 이스라엘에 승리를 가져다주었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 분쟁과 갈등을 불러오는 한마디가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한마디가 있다. 오늘 나의 언어생활은 어떠했는지 돌아보고, 사람을 세우고 평안을 전하는 말을 하도록 힘쓰자. ▶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내 생각과 경험에 사로잡혀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판단하자. ▶ 하나님은 깨끗한 자에게 그분의 깨끗함을 보이시는 분이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끊을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구하자. ▶ 가정과 일터, 공동체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이타적으로 사용하는지 돌아보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고모와 그 가정을 위해서!

사촌 동생이 천국으로 간 이후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고모와 그 가정을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3년 전 막 중학교에 들어간 사촌 동생이 갑작스럽게 천국으로 갔습니다. 갑작스러운 구토 증상으로 병원에 있던 중에 일어난 일이라 모두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었습니다. 고모와 고모부는 자책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매일 납골당을 찾아가 사촌 동생을 그리워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다고 생각했는데, 고모의 시간은 아직 3년 전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밥도 잘 먹지 못하고, 감정 기복이 커지고, 몸 이곳저곳이 아픈 상태입니다. 외출도 잘 하지 않고 집에서 시간을 주로 보냅니다. 철마다 바뀌던 고모의 SNS 프로필도 사촌 동생과 찍은 사진이 3년째 그대로 걸려있습니다.

사촌 동생은 어리지만, 신앙이 참 좋은 아이였습니다. 늘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고모와 고모부를 모시고 교회에 갔습니다. 고모와 그 가정이 사촌 동생의 신앙을 떠올려 다시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언젠가는 이 고통스러운 아픔이 무뎌져서 행복한 추억을 떠올리며 나누는 날이 오기를 기도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위로와 평안으로 고모와 그 가정과 함께 해주시고, 보살펴주시기를 기도해주십시오.

/ 익명의 성도

기도제목 보내는 곳: hha0@onnuri.org

가족과 함께 떠나는 '신앙교육여행'

꽃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문준경'

이세영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완연한 봄기운이 절정을 이루고 만개한 꽃들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하나? 아름다움이 주는 기쁨과 행복을 잠시나마 경험할 것이다. 꽃은 늘 사람들의 일상에서 피어나고 있다.

5월 '신앙교육여행지'를 소개하기에 앞서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은 것은 꽃보다 아름다운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함이다. 전라남도 신안의 한 섬인 '증도'에서 피어나 찬란한 생을 살다가 아름다운 꽃처럼 영원히 신앙인의 가슴속에 오늘도 살아있는 '문준경 전도사'를 소개하고 싶다. 문준경 전도사의 목회지 '증도'를 5월 신앙교육여행지로 삼았다.

문준경 전도사는 1891년 2월 2일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도에서 태어났다. 양반 가문에서 자란 그녀는 비교적 유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여성들이 그렇듯 양반 가문임에도 배움의 자리에는 소외되었다. 집안 어른들의 주도로 문준경 전도사가 17세가 되던 1908년 증도에 사는 정근택과 혼인했다. 그런데 남편 정근택과 사이에서 아이가 없었다. 출가(出嫁)한 여자가 임신을 하지 못해 대를 잇지 못하면 쫓겨나는 것이 당연시되었던 시대적 분위기였지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을 받았다. 특히 시아버지의 배려로 글을 배우며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언제까지 아이없는 상태로 지낼 수 없었기에 남편에게 두 번째 부인을 얻을 것을 권유했고, 그 자녀들을 정성으로 돌보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20여년이 지나고 홀로서기를 했다. 목포 북교동에서 삯바느질로 생활하던 중에 전도부인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되었다. 문준경 전도사는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딸 문준경으로 새로운 삶을 살았다. 그 이후 이성봉 목사를 통해 사역자의 길로 들어섰다. 문준경 전도사에게 슬픔이 서려 있는 땅 '증도'를 거점 삼아 목회 활동을 했다. 증도를 찾았다면 '문준경전도사순교기념관'(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문준경길 234)을 첫 번째로 찾아가기를 바란다. 그녀의 일대기를 살펴보고, 영상도 보고, 안내도 받으면 좋다.

1993년 문준경 전도사는 '증동리교회'를 개척했다. 증동리교회 첫 번째 성도이면서 문준경 전도사의 시숙인 정영범의 헌신으로 교회터를 얻었다. 증동리교회는 증도의 종합복지센터 역할을 감당했다. 어린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어려움을 당한 동네의 모든 이들에게 아낌없이 손을 내밀었다. 병자에게는 간호를, 상을 당한 이들에게는 위로와 수고를 베풀었다. 동네에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해줬다. 고무신을 1년에 아홉 켤레나 바꿔 신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문준경 전도사의 헌신으로 단 한 명의 성도도 없던 증도 주민 50%가 성도가 되었다. 그녀의 영향력이 얼마나 특별하고 놀라운지 알 수 있다.

발걸음을 돌려 증동리교회 뒤편에 펼쳐진 산길을 올라가 보자. 야트막한, 그렇다고 마냥 쉽게만 생각할 수 없는 증동리교회의 뒷산 정상에 오르면 증도의 유명한 해송숲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그 절경을 뒤로하고 올라온 길 반대편으로 몇 걸음 옮기면 '이게 뭘까' 싶은 생각이 드는 바위를 볼 수 있다. 문준경 전도사가 늘 기도하던 '기도바위'다. 한 개인이 보여준 초인적인 헌신과 희생을 감당하는 뒤편에는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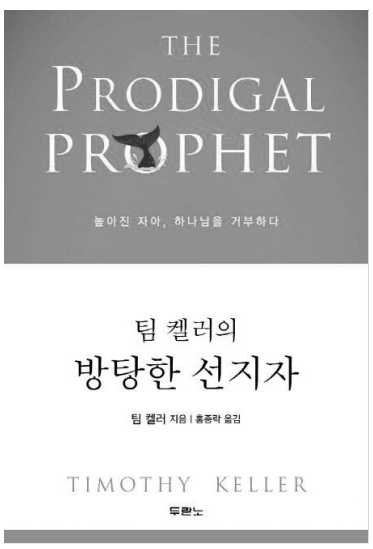
문준경 전도사의 개척지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교회는 다름 아닌 '대초리교회'였다. 당시 대초리는 증동리에서 바닷물이 다 빠진 뒤에 징검다리를 이용해서 건너갈 수 있었다. 증동리와 대초리는 거리가 꽤 멀어서 건너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조수물이 급하게 채워질 때는 시간을 잘 맞춰 건너야 했다. 금방 물이 잠겨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초리까지 가는 발걸음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다. 그것보다 힘든 일도 있었다. 대초리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극도로 반대하는 몇몇이 있었다. 그들은 설교할 때 난입해 예배를 중지시킬 뿐만 아니라 돌을 던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예배당에서는 늘 문준경 전도사의 찬양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술에 취한 이들이 문준경 전도사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문준경 전도사는 그들을 인내와 사랑으로 품고 기도했다. 사랑이 이긴다고 했던가? 마침내 그들이 문준경 전도사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 증거를 품은 교회가 '대초리교회'다.

대초리교회는 건축가의 작품처럼 아주 멋진 자태를 뽐낸다. 대초리교회에는 쉽게 보기 힘든 그랜드피아노가 있다.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슬픔과 기쁨을 노래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전도의 도구로 썼던 문준경 전도사를 기억하며 교회의 양해를 구하고 가족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보내면 5월 신앙교육여행 마지막을 유익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안주형 학생(대전 꿈땅)이 문준경 전도사가 기도하던 기도바위에서 기도하고 있다.

두란노 편집자가 추천하는 '놓치기 아까운 책'

하나님의 선하심에 절망한 성난 선지자



〈팀 켈러의 방탕한 선지자〉
팀 켈러 저 | 두란노 | 14,400원

요즘만큼 책을 안 읽는 세대가 있었을까? 며칠 전 30년 출판업에 잔뼈가 굵은 선배를 찾았다. 책의 종말이 온 것 같은 이 시대에 대한 선배의 대답이 신선했다.

사람들이 책을 등지게 된 이유가 다름 아닌 책을 읽은 사람들이 보여준, 그들이 살아낸 삶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 이유가 스마트폰이나 SNS 탓이라 생각했던 나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진단이었다. 그렇다. 책 읽은 세대들이 보여준 삶이 실패했고, 그 가치를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결과 때문일 수 있겠다.

신앙 역시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닐까? 신앙을 가졌다는 우리가 예수의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어김없이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다. 바로 〈방탕한 선지자(Prodigal prophet)〉다. 이 책은 〈요나서〉를 다루고 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선지자 요나 이야기나 설교를 아주 많이 들었을 것이다. 저자는 왜 〈누가복음〉에서 소개된 '탕자(prodigal son)'라는 명칭을 요나 선지자 앞에 동일하게 붙인 것일까? 〈요나서〉를 연구했던 기존의 학자들 역시 하나님을 피해 달아난 요나 선지자를 아버지를 떠난 '탕자(prodigal son)'와 동일한 맥락에서 주목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에게 정작 보여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탕자의 모습만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니느웨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무척 싫어했던 후반부 요나와 탕자의 형이었던 큰아들의 모습에 더 비중을 둔다. 전반부에는 탕자였다가 후반부에는 큰아들 같은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 신앙의 실체를 마주하게 한다.

하나님께 분노하고 성내는 선지자가 있을까? 하나님을 거부하며 달아나는 요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절망했다. 자신의 적이자 원수인 니느웨를 향해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폭풍에 가두고, 이교도 뱃사람들의 꾸짖음을 듣게 하시며, 바다에 던져서 큰 물고기 배 속에 머물게 하신다. 요나가 얄팍한 영적 정체성을 마주하고, 자신만의 성벽을 세운 눈먼 신앙과 민족을 하나님보다 큰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을 깨닫기를 원하셨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안일한 신앙을 깨닫기를 원하셨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찔렸던 부분이 있다. 하나님은 요나가 그토록 경멸했던 이교도인 뱃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그들의 나은 모습을 보게 하셨다. 폭풍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이교도나 그리스도인 할 것 없이 모두 같은 배를 탄 운명임을 깨달았다.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일까? 우리의 얄팍했던 영적 정체성을 생각하게 된다.

주목할 부분은 요나의 여정이 물고기 배에서 나오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후반부가 통째로 남아 있다. 후반부가 제기하는 문제는 미제로 남는다. 〈요나서〉는 왜 열린 결말로 끝나는 것일까?

우리도 한 사람의 요나다. 하나님께 실망한, 은혜를 잊어버린, 자기 의에 빠진, 나만의 신앙에 자족하는, 신실하다고 자부하는 이 시대 요나들에게 이 책이 많은 도전을 줄 것이다. 요나처럼 스스로 만든 신앙의 성벽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 밥을 먹듯이 물을 마시듯이 자연스럽게 신앙의 삶을 살 때, 진리로 살아낼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 권옥경 부장(두란노 출판 3부)

퐁당 미디어 콘퍼런스 2023

AI시대, 교회의 새로운 미디어 전략 모색

기독 OTT ‘퐁당’에서 목회자와 미디어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퐁당 미디어 콘퍼런스 2023’을 개최한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하는 새로운 미디어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오는 5월 29일(월)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진행된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관계와 소통, 그리고 미디어’(삼성전자 이인용 상근고문), ‘AI, 미래 사회 그리고 기독교 전망’(DMLab 데이비드 전 대표), ‘4C 및 온라인 교회 활용 사례’(라이프처치, 유버전 성경 바비 그룬왈드 목사), ‘AI 시대의 목회와 4C 전략’(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또 국내외 기독 단체 18곳에서 부스를 마련하고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한다. 참가신청은 퐁당 미디어 콘퍼런스 공식 웹사이트(http://fondantconference.kr)에서 하면 된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생명의삶〉 표지 사진 공모전

6월 30일까지

〈생명의삶〉 표지 사진 공모전이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공모전 주제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일상을 잘 표현한 작품’이다. 〈생명의삶〉 독자(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인당 세 작품 이내로 출품할 수 있다. JPG 또는 JPEG 파일, 표지 적용을 위한 세로형 사진을 권장한다. 보정 없는 원본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생명의삶〉 캠페인 페이지(www.durannoQT.com)로 접수하면 된다. 입상작은 월간 QT지 〈생명의삶〉 표지로 사용한다. 시상도 한다. 최우수상(1명) 상장 및 상금 200만 원, 우수상(3명) 상장 및 상금 100명 원, 가작(5명) 상장 및 상금 50만 원, 입선(5명) 상장 및 상금 30만 원이다. 모든 시상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두플러스 1년 이용권을 준다.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색채심리’ 세미나

무의식 속에 꼭꼭 숨겨진 속마음을 안전하게 표현하도록 돕는 색채심리 세미나가 5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양재온누리교회 도곡교육관 기쁨홀(3층)에서 진행된다. 임명희 교수(백석상담대학원 외래교수)가 ‘색채심리의 개념이해’, ‘색채의 상징과 연상’, ‘컬러히스토리’, ‘색채심리치료의 실제’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색채심리에 관심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26만 원.

문의: 02-2078-3270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로 초대합니다!

6월 27일까지 매주 화 오후 8시 온라인(Zoom)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Onnuri Online Community; 이하 온라인커뮤니티)가 6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커뮤니티는 여러 사정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20세 이상 성도들을 위한 맞춤 온라인 공동체다. 대상은 개인 사정으로 공동체에 소속할 수 없었던 성도, 공동체 활동에 무관심하거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성도, 전도 대상자와 구도자다. 이번 학기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한건수 대표(국민대 겸임교수), 여성민 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온라인커뮤니티에 참가하고 싶은 성도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3215-3214

카카오톡 채널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채팅창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제이홈 입양위탁 세미나

6월 18일 오후 6시 서빙고 꿈아이홀

사회선교부 제이홈사역팀(입양위탁 커뮤니티)에서 입양위탁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6월 18일(주일) 오후 6시 서빙고온누리교회 꿈아이홀(선교관 2층)에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입양위탁 현황을 설명하고, 입양위탁할 수 있는 조건 및 절차 등을 알려줄 예정이다. 입양과 위탁에 관심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제이홈은 ‘예수님의 집, 요셉의 집, 제2의 집’이라는 뜻으로 온누리교회 입양가족들이 모인 사역팀이다. 입양 자녀양육을 돕고, 입양위탁에 관심있는 성도와 가정을 응원하고 지원한다.

문의: 02-3215-3434, 3436

경기A공동체, 봄 야외 수련회 ‘다함께’

지난 5월 13일 안산 화랑유원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7)에서 경기A공동체 봄 야외 수련회가 있었다. 경기A공동체 봄 야외 수련회는 ‘다함께(다시 만나 주 안에서 함께 하나 되는 공동체)를 주제로 진행됐다. 170여 명이 참석했다.

CGN 후원자 초청콘서트 ‘지금 여기 함께’

후원자 850여 명 참석

CGN 후원자 초청콘서트 ‘지금 여기 함께’가 지난 5월 11일(목)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막 올랐다. CGN을 응원하고 기도하는 후원자 850여 명이 참석했다.

CGN 대표 이용경 장로는 “올해로 창립 18주년을 맞은 CGN이 순수 복음 메시지를 쉼 없이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후원자님들 덕분”이라며 “앞으로의 한 영혼을 위해서 어디든 찾아가는 CGN과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훈 목사 장신대 명예신학 박사학위 받아

이재훈 담임목사가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장신대) 명예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5월 16일(화) 장신대 ‘제122주년 개교기념 감사예배 및 기념행사’에서 학위수여식이 있었다.

이상억 교수(장신대)는 “이재훈 목사님은 교단과 학교, 노회를 위해 큰 노력을 하시고, 신학생들에게는 목회자로서 좋은 모델이 되어주는 분”이라며 “겸손하게 온누리교회를 잘 이끌어가시는 이재훈 목사님의 명예신학 박사학위 수여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 외에 고훈(안산제일교회 원로목사), 정안덕(중국 계림 애심원 문화교류 유한공사) 대표가 장신대 명예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학청년부, ‘가정의 달 블레싱’

5월 28일까지 8개 공동체 18개 팀 참가

대학청년부 ‘가정의 달’ 블레싱이 5월 28일(일)까지 이어진다. 대학청년부 8개 공동체 18개 팀이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선교사 부모, 이주민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을 섬긴다. 여호수아청년부 안산M센터, 허그브릿지, 명진들꽃사랑마을, 간성영세교회, SNS청년부 아프간팀, 요셉청년부 포천하랑센터, W청년부 인천동산교회, J4U청년부 공릉종합사회복지관, 허브대학부 청운노인복지센터, 하늘대학부 산소망선교회 등을 섬긴다.

/ 홍하영 기자

미혼양육모 재정 회복 돕자!

맘앤맘스, 경제정의팀, 아트비전 연합사역

지난 5월 13일(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미혼양육모들을 위해 사회선교본부 맘앤맘스, 경제정의팀, 아트비전이 연합해 ‘미혼양육모 재정교육’을 했다. 미혼양육모 11명, 자녀 9명이 참석했다.

맘앤맘스가 주관한 이번 미혼양육모 재정교육에는 사회선교본부 경제정의팀 8명, 아트비전 4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특히 경제정의팀에서는 미혼양육모들에게 일대일 재정 컨설팅을 해줬다. 아트비전에서는 미혼양육모 자녀들을 대상으로 드로잉 수업을 했다.

김사랑 자매(가명)는 “이번 재정 컨설팅을 통해 평소 궁금하고 도움이 필요했던 재정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면서 “귀한 섬김을 베풀어주신 맘앤맘스와 경제정의팀, 아트비전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파워임팩트(POWER IMPACT) 참가자 모집

부모반 6월 3일, 청소년반 6월 10일 개강

청소년부모성장학교 ‘파워임팩트(POWER IMPACT)’ 부모반과 청소년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부모반 6월 3일부터 7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도곡교육관 충성홀(1주차 온라인), 청소년반 6월 10일부터 7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도곡교육관 화평홀에서 진행된다.

파워임팩트는 부모와 자녀, 부부관계를 새롭게 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돕는 과정이다. 참가신청은 6월 10일까지 아이스쿨이나 회복사역 홈페이지(recovery.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대상은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그 부모이다. 회비는 1인당 10만 원(부부가 등록하면 15만 원, 청소년 추가 1인당 5만 원)이다.

문의: 02-793-9686
010-4548-1522

장로칼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김문갑 장로
(도곡공동체)

아웃리치팀 6명이 4박 6일 짧은 일정으로 유럽의 최빈국으로 알려진 몰도바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의료봉사'를 했다. 몰도바는 우크라이나 땅에 붙어 있어서 전쟁으로 인한 난민들이 많이 왔다. 하지만 산업 기반이 없어서 도로나 의료시설이 참으로 열악하다. 동유럽의 가장 가난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1년 전 전쟁 직후 피난 온 많은 난민을 돕기 위해 몰도바를 다녀오고 나서 그들의 눈에 맺힌 두려움과 공포, 남편과 아버지와 떨어져 타국에 몸을 의탁하는 아내와 어린 자녀들의 처량한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다.

올해 5월, NGO 더멋진세상에서 몰도바를 돕는 '호수복원사업' 준공식을 진행했다. 호수복원사업은 몰도바를 돕는 여러 프로젝트 중 하나로 시골 마을의 말라버린 호수를 복원하는 일이다. 호수를 복원해서 마을 사람들이 마실 식수와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새들과 물고기가 서식하게 하는 등 자연환경을 회복시키고, 가난한 마을을 되살리는 사업이다.

몰도바 호수복원사업 준공식에는 몰도바 현직 국회의원 두 분과 정부 농림부차관 그리고 그 지역 행정 관리 등 많은 사람이 참석했다. 몰도바 정부가 할 수 없었던 호수 복원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했고, 메말라 버린 땅에 푸른 물이 들어차 있는 모습에 현지 주민들도 기쁨과 감사의 소감을 말했다. 현지 언어라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들의 얼굴을 보며 마음으로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준공식 이전부터 그 지역에 여러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확장되고, 교회에 주민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일들을 들었다. 우리가 오기 전부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다.

NGO 더멋진세상 대표 김광동 장로님의 요청으로 호수복원사업 준공식 이후 몰도바 주민과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와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우리 아웃치팀은 매일 오전과 오후, 돌아오는 날 오전까지 여러 난민촌을 돌아다니며 의료봉사를 했다. 열악한 의료시설로 인해 치료받지 못했던 난민들을 치료하고, 현지 기독병원과 협력해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의료혜택을 제공했다.

진료 중간과 진료가 끝난 후에 현지인과 난민들을 위한 작음 음악회도 열었다. 우리 아웃리치 팀원 중 연주자들이 준비한 악기로 복음성가와 민요, 누구나 잘 아는 곡들을 연주하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했다. 여러 사역을 한 자리에서 협력함으로 몰도바 현지인들과 난민들에게 더 큰 감동과 기쁨을 선사할 수 있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나 나라에 간다. 난민사역이나 긴급구호, 지역 개발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삶의 실천과 직접적인 도움을 주면서 전한다. 영, 혼, 육이 변화하는 총체적 선교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랑을 보여 준다.

해외 아웃리치를 갈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은혜를 전하는 일이 봉사하는 이들에게 더 기쁨이 된다는 것이다.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복음에 빚진 자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권사칼럼

동역, 함께하는 행복!

김수진 권사
(맘앤맘스 팀장)

지난 5월 13일(토), 사회선교부 소속 맘앤맘스와 경제정의팀, 아트비전이 연합해서 한부모 가정을 위한 사역을 했다. 몇 달 전 맘앤맘스 리더십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혼양육모(맘앤맘스 멘티)들을 돕고자 경제정의팀에 협업 요청을 했다. 흔쾌히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엄마들이 강의를 듣는 동안 혼자 있을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했다. 고민하던 중에 사회선교스쿨 베이직 사역 체험으로 만났던 아트비전팀이 떠올랐다. 부탁을 드렸더니 역시나 바로 시간을 내주시기로 하셨다. 조건 없는 헌신과 섬김에 정말 감사했다.

이번 협업 사역을 통해 맘앤맘스 리더십들은 많은 것을 깨달았다. 사회선교부 안에 있는 다양한 사역팀들이 언제든지 서로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또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행복했다.

맘앤맘스가 미혼양육모들을 대상으로 재정 컨설팅을 한 이유가 있다. 나라와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제 개념의 정착화를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었기 때문이다. 또 부채가 있는 이들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꼭 필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정의팀이 일대일 재정 컨설팅을 해주셨다. 미혼양육모들의 재정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셨고, 필요한 컨설팅을 몇 번 더 해주시기로 약속했다. 같은 시간 아트비전에서는 '나를 찾는 드로잉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주셨다.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며 신나는 시간을 보내주셨다. 맘앤맘스와 경제정의팀, 아트비전의 협업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셨다.

이날 행사에는 맘앤맘스 멘티 미혼양육모 6명과 한 모자원에서 생활하는 미혼양육모 5명이 참석했다. 섬기는 사람들은 경제정의팀 8명, 아트비전 4명, 맘앤맘스 20명 정도 모였다. 지원자보다 3배 이상 많은 섬김의 손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미혼양육모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고 돌보시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주말 오후 귀한 시간을 내 미혼양육모들을 섬겨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전하고 싶다. 동역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앞으로도 동역의 자리가 더 많아지기를 소망한다.

최근 또 다른 동역으로 감사한 일이 있었다. 맘앤맘스 멘티 엄마의 자녀가 오랫동안 악기를 배우고 싶어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그런데 성악가 신델라 자매님이 운영하는 사단법인 뮤직나눔의 도움을 받아 악기를 배우는 길이 열렸다. 신델라 자매님의 도움으로 대교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음악 장학생(1년 동안 원하는 음악 공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에 지원하게 되었고, 정말 감사하게 선발되었다. 하나님이 밤마다 두 손 모아 기도했던 그 어린 아이의 소망을 들어주셨다. 그 아이는 지금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레슨을 받고 있다. 언제나 필요할 때마다 귀한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했다.

맘앤맘스에서는 미혼양육모 외에도 다문화 가정 등 많은 싱글 엄마들을 섬기고 있다. 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서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그들의 용기와 희생, 헌신을 응원해주고 손뼉 쳐 주고 싶다. 그들을 위한 많은 관심과 기도, 후원과 동역이 이어지기를 기도한다. 동역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신앙에세이

신앙 전수와 대화의 기회

장재원 목사
(양재 차세대)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공동체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과 함께 그 가정에 자녀를 선물하심으로 인류의 생육과 번성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대리자로 부모를 세우시고,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게 하셨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부모가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양육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네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 주라"(신 6:6~7)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의 마음에 먼저 새겨야 한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회심을 의미한다. 우리의 자아가 아직도 자신의 욕망을 향하고 있다면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둘째, 말씀 안에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주체 즉, 부모가 신앙교사라는 정체성이 필요하다. '부모가 신앙교사'라는 인식을 통해서 부모는 매 순간 자녀 앞에서 본을 보여야 함을 깨닫는다. 말씀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에서도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이 갖춰진다면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자연스럽게 전수할 수 있다. 만약 말씀 안에서의 회심 없이 자녀의 신앙교사가 된다면 겉껍질만 전수하는 바리새인 신앙교사가 된다. 회심은 했지만 자신이 신앙교사라는 정체성이 없다면 자녀를 교회학교에만 가두는 방관자로 살게 된다.

기독교 교육 학자 호레이스 부쉬넬는 "자녀들의 신앙 성장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이루어짐"을 강조한다. 특히 그는 "부모의 신앙과 성품이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가정에서 여러 모양으로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면서 가정과 부모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된 삶을 사는 게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왜 중요한지를 직접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신앙 전수의 물길을 만들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자. 예를 들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자녀들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친구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자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해줄 수 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부모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다.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자녀의 시선을 대화를 통해 믿음의 시선으로 바꿔줄 수 있다. 매일 밤 침대 맡에서 자녀가 보낸 하루를 이야기하며 말씀으로 축복기도 해줄 수 있다.

자녀와 보내는 모든 시간이 대화의 기회다. 말씀을 억지로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다. 모든 상황과 대화 가운데 기회를 포착해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 된다. 자녀들의 삶은 여러 외부요인으로 요동하지만, 부모에게 그 순간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대화의 기회다.

조바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에게 전해줄 기회는 매 순간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과 결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신앙 양육은 끊임없는 대화의 연속이다. 내 안에서 어떤 기준을 잡거나 목표를 세우지 말자. 다만 계속 대화의 기회를 포착해서 우리 가정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자.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종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박윤애 팀장(010-2771-007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매월 첫주 군포 쉘터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호, 매 첫주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0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따갈록어 주일 13:30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 스리랑카어 주일 11:0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Peace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14:00 Dream Kids / 다문화 대청 주일 12: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케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5007-3616)
캄보디아어 11:00 703호 / 미얀마어 11:00 706호 / 차세대꿈땅 11:00 705호 / 러시아어 14:00 703호 / 몽골어 19:00 706호 / 파워웨이브 토요일 14:00 706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네팔어 11:00 2센터 2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 11:00 차세대예배실 / 열방청년예배 13:30 4층 OGA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영어) 주일 11:00 301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4호 / 힌디어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 토요일 20:00 304호 / 차세대 주일 14:00 309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30-12:0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셔틀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홍숙의 권사(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8964-5275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TP 42기 단기선교사 훈련생 모집
기간: 10월 2일~27일 (4주간)
장소: Acts29 비전빌리지
자격: 선교지에서 1~2년간 사역하기를 원하는 자
접수: www.visionvillage.org 홈페이지 신청서
마감: 8월 25일(금)
문의: 031-331-8180, 8213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업무: 분야별 개발자(프로그래머) 2명, 정기구독 상담원 1명, 해외저작권 업무 1명
형태: 정규직(수습 및 시용기간 3개월), 주5일 근무(주 35시간)
지역: 서울 서빙고동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 1~4시(추후 주일 연습 재개)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010-8285-6435

양 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땅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땅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CMN 시온팀 동역자 모집
모집: 치과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CMN 토브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 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 지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양재 권사 성가대원 모집
연습: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
문의: 010-8949-1811

온누리선교학교 'Why Mission?'
일시: 5월 14일~6월 18일 매주 주일 오후 3시~5시 30분
등록: 5월 21일
신청: 아이스쿨
회비: 5만 원
문의: 010-5217-3060

다문화 가정의 차세대를 위한 기도자 모집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장소: 양재 JDS홀
문의: 010-6422-8376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패밀리워십, 예꿈놀이학교, 샤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5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대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6부 19:00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땅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꿈땅 11:30 402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 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땅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땅홀 / 초등부 11:30 2층 꿈땅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땅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양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J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 11:30 무어홀 / 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 11:30 박모세홀 / 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벨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or 아펜젤러홀 /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
새벽예배 월~금 6:00시안홀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30 2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 3부 14:10 본당
대학청년(주일)
14:30 3층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샤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프라미스) 14:00 / 3부(프라미스U) 14: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기쁨홀 / 유치부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9:00,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19:30 본당
금요기도회 20:00
새벽예배 오전 6:30 본당

영종 032.752.7937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백향목홀(3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9:00 / 꿈탕(유초등부) 11:30 언더우드홀(2층)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횃불선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65-9686~8(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동**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lia
- **오클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송재호 목사 852-2506-0089
  221-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KLN, HK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김철희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ir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탁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도육환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은수 강지영 고범석
권오향 권용갑 길혜영 김도윤
김미정 김선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완 김영배 김요섭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재승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용 김태완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치형
노희태 렴문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천 박천종
박형준 배행삼 백성우 백인규
변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석
스티브차 안사무엘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유진아
윤길중 윤마리아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길탁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효 정현석 정형권
정회성 제치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최대흥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용준
최재윤 최종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청훈
한화수 한충희 홍기완 허원희
황종연

◈전도사(전임)
김은혜 김태광 민근홍 신대종
신현민 송동주 송예찬 오현교
유성하 이상욱 이진기 이호준
이형목 장지훈 정연상 조은광
주하늘 진선미

◈목사(준전임)
구혜미 조호영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가 나 강정모 김래위 김바울
김병석 김병철 김용산 김은하
김진숙 김종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뉴이엔은 랜디빠당줄렉스 마주마누룽
박씨마 백승현 비 컬 서영철
싱루아마놉 사가르 에릭마이클스톨즈
윌리엄 이민영 이아르뚜르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윤치연 제인량
존굴레이즈 차제이미 최정현 허효경
황연신

◈전도사(파트)
강귀용 강하람 강현구 권대식
권예람 김가희 김디모데 김동규
김미리 김민수 김반석A 김반석B
김영신 김예찬 김윤아 김의연
김종균 김주영 김정무 김지선A
김지선B 김진희 김태현 김하은
김한빛 김현경 남 혜 민혜영
박미애 박세연 박 성 박성배
박성원 박성훈 박새미 박예슬
박은혁 박의력 박유진 방예린
배명지 백성주 서예찬 송유진
송선애 신기한 신새벽 신주용
심은섭 안류택 양현모 염경덕
오국헌 오성광 오성민 우승민
우진실 유석현 유요한 유현우
유호동 윤석무 윤종연 윤혜진
이나단 이도열 이명희 이민규
이상은 이소라 이송희 이시하라
노리코 이요한 이진수 이정빈
이준수 이준영 이지영 이태호
이 한 이현영 이형준 이휘영
임경미 임노완 임동현 임진숙
임정민 장건우 장광석 장영주
장요한 정기은 정상원 정성민
정은영 정연영 정주영 정희애
제영민 조민희 조슬기 조운식
조준기 지수정 주승환 주찬휘
진유석 최규종 최민정 최명훈
최은영 최혜정 한용태 허영은
홍근영 홍세나 홍슬기 황유일

◈사역장로
강기석 강영재 강의선 강인지
강찬석 강철호 구재영 권득한
권영석 권용성 권용한 권칠준
김경선 김경철 김관근 김관식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식
김남열 김명종 김명철 김상섭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묵
김성순 김상인 김수광 김수역
김수웅 김승열 김영수 김 완
김용성 김 웅 김웅배 김원규
김원균 김원중 김윤식 김의득
김이곤 김인화 김장렬 김재욱
김종건 김종성 김종승 김주흥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태경
김하중 김현철 김형식 나상권
노재한 노흥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극 문창호 문충실 문현구
문형남 박 공 박병익 박봉래
박상송 박석봉 박성근 박성호
박영태 박용국 박종현 박찬빈
박태성 배 문 백남인 백승웅
백호현 백홍기 상병선 서성렬
서진봉 서찬교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현종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춘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인 안태환
양유식 양주현 양재수 엄태진
오성연 우광방 원우현 유병진
유병훈 유완영 유재천 유 형
윤기홍 윤성열 유의준 윤영섭
윤영오 윤현덕 윤형주 이강범
이건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남수 이동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웅 이병현 이상기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용경 이용하 이우곤 이웅대
이장로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한열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장 광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장하 정강무 정대서 정돈영
정문규 정병균 정보원 정순풍
정영열 정용화 정재탁 정재현
정학영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정수업 정진하 정파종 정희원
조항진 조희동 주수일 주웅일
차승철 차준구 차준한 천영무
최도성 최득린 최 명 최선수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충길
최희영 편무옥 한갑수 한규종
한덕종 한백진 한양희 한종대
한형식 함공식 함선호 허형석
호종일 홍기명 홍덕표 홍범식
홍종철 홍정표 황영옥 황용오
황의서 황재규

◈시무장로
강경국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신익 강은철 강창재 강태욱
고다이라 고영주 곽병철 곽진성
곽희준 권순형 권오습 권오혁
금세종 김경돈 김경학 김광하
김광훈 김기섭 김기영 김도영
김동언 김두진 김만순 김명세
김명현 김명훈 김문갑 김민찬
김병순 김병옥 김상집 김상철
김선호 김성균 김성종 김성진
김성철 김성훈 김신원 김영관
김영손 김영욱 김영욱 김영한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환C 김용기
김용호 김우호 김 원 김이준
김인선 김장열 김재일 김정민
김정훈 김종완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창석 김철민 김철주
김해기 김현주 김형겸 김형준
김형중 김화선 김화수 김효구
김희준 나광욱 나 영 나영욱
남명현 남상길 남상옥 남윤창
남정진 남주언 노기홍 노하수
라상원 류기범 명영찬 문쌍찬
문영기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균 박명률 박성규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한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재두 박중현 박지수 박치완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흥균
박흥선 방찬종 배기영 배승호
백종신 백종욱 서달석 서명수
서병화 서성현 성광제 성주명
손기철 손정래 손태용 송동섭
송종환 송호철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철우 신학철
신헌승 심길섭 심효무 심희돈
안동혁 안상헌 양상식 양 웅
양준홍 양춘경 양충식 오 명
오범규 오상록 오성훈 오승탁
오이식 용내문 우승구 원종호
유봉국 유재홍 윤석우 윤석주
윤수민 윤영각 이경호 이경훈
이광순 이규천 이기증 이길수
이남식 이동욱 이백용 이병국
이봉의 이상도 이상율 이상준
이석일 이수완 이승배 이영근
이영복 이영찬 이우경 이은일
이인용 이재광 이재춘 이정구
이정근 이종길 이종우 이종철
이진택 이태열 이태환 이학일
이해달 이헌규 이홍선 임 훈
임광순 임병수 임상범 임정열
임현태 임호열 임희창 장경문
장경식 장광열 장규환 장문석
장선철 장정열 전영수 전한백
정광열 정명호 정상기 정영규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영환
정운섭 정운오 정원만 정응화
정일영 정제범 정진호 정태경
제무성 조대식 조대희 조병현
조성수 조성현 조성환 조진호
조청구 주재량 진종구 최민철
최봉림 최상근 최석민 최성완
최용재 최주관 최한우 최현재
최형수 최호림 하주헌 한복규
한상규 한왕석 한창격 한충희
한필규 함일성 함정철 허 경
허광수 허복만 허영남 허영한
허필우 홍갑진 홍성호 홍의택
홍충선 홍해남 황병원 황상윤
황성룡 황윤일

◈명예장로
김종수 박동순 박찬구 이승규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장옥룡
정광택 정병주 정상건 지성한
채수삼 최창걸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리차드브릭스 박자인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정지석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종훈 추교명 함지언 황재익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일 김은혜 김정겸
김정환 김지형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민호 이명근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익현
전병곤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진아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홍용식

◈반주자
강영우 강영은 강예은 고은찬
김강리 김기아 김병성 김보라
김보름 김선혜 김성태 김수현
김영찬 김은실 김은영 김은지
김인영 김정국 김지은 김지훈
김진수 김찬희 김현정 김형주
김효종 남궁진 남민우 남에셀
노성희 노소라 도은경 문예지
문희정 박선희 박아령 박요셉
박윤진 박지훈 박주영 배영근
송효빈 신선호 신은혜 심현보
안소라 안지연 안호진 안희준
오주영 우경진 염주희 왕희준
유은혜 유재경 유종광 유지혜
윤정희 윤주순 윤진영 이 준
이강석 이슬기 이애리 이예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이혜진
임현우 장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지은
정진우 조민지 조영혜 천은진
최영균 최은미 최지훈 홍서영
황지영

해외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권영환 김도균 김철진 김철희
박신웅 박태영 서재범 송재호
유현목 이길탁 이민욱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호석 니시야마
신이치 하카마타 미키 후쿠자와 마키토

◈미주OMA담임목사
김형철 마크최 심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중재 정장철

◈부목사
강일영 김기홍 김도일 김명성
김상훈 김인숙 김성연 김성진
김정운 김진우 김재형 김창식
김창호 남진숙 노경호 문성일
박대원 박종훈 박찬민 박현욱
박효빈 배성우 변범섭 손 담
손미경 신기원 심제헌 심형진
양진범 엄영기 우윤상 유명종
유영순 이경호 이미령 이성은
이성원 이은택 이주영 이정주
이형근 장이삭 장제홍 전상현
전홍천 정동윤 정용환 조수정
조정호 주지은 최철홍 허 민
홍동욱 홍세반 홍 정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전도사
강요안나 고은아 강성효 강은주
김성현 김인혜 김영봉 김정옥
김창식 마커스 문성희 박종구
박지혜 서재욱 설산정 송민선
안대진 안지현 이민혜 이성훈
이수연 이은희 이용기 이지영
임지훈 윤성민 윤성준 장성진
장세윤 장유미 정선진 정은숙
정혁기 조 단 조민철 주지은
최정수 최진숙 코바야시 메구
쿠보텐치 하청훈 한현희 호산나
황나현 햇슨오 Amos Lee Christine Daniel Kim David Ko Enoch Cho Esther Choi Shin David Kim Jeana Lee Jeff Yoo Jessica Yi Joe Oh Sam Chung Rachel Back Tommie Njobvu

◈사역장로
강희윤 권덕수 김경덕 김수광
김수호 김현중 남 영 백남인
서인택 신중수 우승호 윤영오
이문호 이정기 임병옥 정길안
한덕종 홍규석

◈시무장로
강성규 고성환 권우중 권오현
김재동 김재우 김준영 남영근
박호택 성헌제 손정래 신솔문
여훈필 유형민 이관표 이광철
이상헌 이수성 이은창 이준상
장민용 정헌주 조규배 조성민
조윤행 코다이라 노리히로 한상훈
허규회 홍관희 황용인 Henry Park Hyun Chang

◈명예장로
김용석 염성국 윤부국

◈협동장로
강광일 김동민 김달수 김명훈
김연수 김요셉 김종수 윤창근
윤한돈 인정식 임헌식 오명진
정석환 최대화 최승호 최태영
추교명

◈성가사
고양숙 김성수 김수정 김용희
김좌겸 김진용 김홍규 남명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우람
송희경 엄지영 여훈필 염혜숙
유기열 이정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조경화 조요셉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광고

NGO더멋진세상 채용 공고
모집: 후원담당자 1명
업무: 후원자 상담 및 후원관리, 핵심후원자 대상 후원경험 향상을 위한 기획 및 실행
문의: 문주영 070-4402-3023
*자세한 사항은 더멋진세상 홈페이지(betterworld.or.kr) 공지사항 참고

온누리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복)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10-6209-3667)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중·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서민정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봉사자 모집(단체, 개인 봉사자 가능)
일시: 평일 10:30~13:30 ※점심식사 제공, 시간조율 가능
문의: 김효정 사회복지사(070-4340-2509)

용산구립청파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및 정리
일시: 평일 10~13시(점심식사 제공)
문의: 문소연 사회복지사(070-4340-2542)

재정

모바일헌금으로 더욱 간편하게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헌금 특징
- 이체 수수료 무료
- 모든 금융기관 이용 가능
*사용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의 모바일헌금 캠페인을 참조하세요.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2-3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I(학습 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넷 중독 상담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소천

5/12(금) 가정사역 안준선 성도 부친상, 정미선 성도 시부상 고 안재식
5/14(주일) Point5 김혜영 성도 부친상 고 김현덕
5/14(주일) 분당A 임희정 성도 부친상 고 임태우
5/14(주일) 강남D 정정호 성도 부친상 고 김기문
5/15(월) 도곡 윤성혜 성도 부친상 고 윤신호
5/15(월) 김포 이은진 집사 모친상, 박혁호 집사 빙모상 고 채경화
5/16(화) 양재 목회행정실 안지숙 간사 부친상 고 안성배
5/16(화) 고양은평 이세라 성도 모친상 고 황의선
5/16(화) 강남C 이경엽 성도 부친상 고 이종근
5/16(화) 과천의왕 이주영 성도 부친상 고 이상일
5/16(화) 강남B 고 박영원 집사
5/16(화) 서초C 박종열 성도 모친상 고 이정희
5/16(화) 도곡 장범익 성도 부친상 고 장창구
5/17(수) 중종로 전명주 집사 모친상 고 김영단
5/17(수) 이수 임창석 집사 부친상 고 임복빈
5/18(목) 광명 박상수 집사 모친상 고 정양명
5/18(목) 마포 성명제 권사 빙모상 고 김순분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홍하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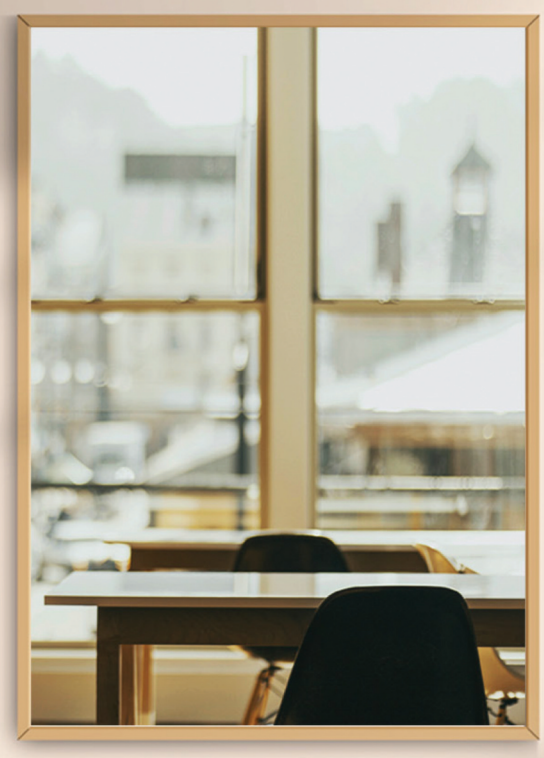
두란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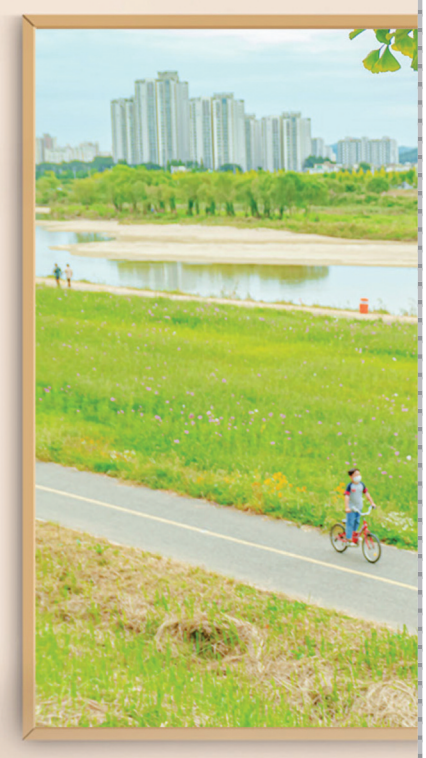
생명의 삶

표지 사진 공모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생명의 삶」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그분의 '삶'을 살게 합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은혜를 사진에 담아 주세요.





2023. 4.15 SAT - 6.30 FRI

공모 주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일상을 잘 표현한 작품
(#믿음 #묵상 #일상 #감사 #은혜 #감동)

응모 대상

「생명의 삶」 독자 누구나(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

공모 기간

2023. 4. 15 - 6. 30(최종 결과 8월 중 발표)

작품 규격

작품 수: 1인당 3작품 이내

형식: JPG 또는 JPEG 권장

작품당 20MB 이내, 해상도 2700X4050 pixel 이상 권장
작품 촬영 후 보정 없는 원본 사진 제출
표지 적용을 위한 세로형 사진 권장

시상 내용

구분	인원	시상 내용
최우수상	1	상장 및 상금 200만 원 + 두플러스 1년 이용권
우수상	3	상장 및 상금 100만 원 + 두플러스 1년 이용권
가작	5	상장 및 상금 50만 원 + 두플러스 1년 이용권
입선	5	상장 및 상금 30만 원 + 두플러스 1년 이용권

*두플러스 1년 이용권(20만 원 상당)

응모 방법

www.durannoQT.com 또는
QR코드로 온라인 접수

문의 durannoQT@duranno.com

- 심사 결과 적합한 작품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상작은 월간 QT지 「생명의 삶」 표지로 사용됩니다.
- QR코드로 공모전 페이지에서 자세한 응모 내용과 주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